

금호산업 매각가 합의 실패... 다시 원점으로

채권단, 산은에 박삼구 회장과 재협상 주문

“시간 갈수록 가치 하락”...매각 장기화 우려

금호산업 채권단이 최종 매각가격 도출 합의에 실패하면서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22개 채권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산업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나 채권단 내 금융회사들 간 이견이 커 최종 매각가 합의에 실패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8000억~8700억원대 범위에서 복수의 가격대를 채권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채권단

은 “박 회장의 자금 여력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 인수 작업에 자질이 벗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권기관들을 상대로 ‘주당 4만5485원씩 7935억원을 최종 매각 가격으로 결정해 채권단 전체 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박 회장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일 것인지’ 의견을 받아 앞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권기관으로부터 다음주

초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의견을 청취해 찬성률이 높은 쪽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산업은행은 이날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28일 채권단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다음 달 초 전체 채권단 결의를 거쳐 박 회장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었다.

채권단이 매각가격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각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매각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각 작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호산업의 매각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단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감당하

기 힘든 가격만 제시하다 매각이 더 미뤄질 경우 회사가 망가져 결과적으로 채권단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채권단의 욕심 때문에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걱정이 크고, 산업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이 그동안 그룹 정상화를 위해 몰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과 박 회장 간 재협상이 성공해 매각가가 정해지면 박 회장 측은 채권단 통보 한 달 내에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금호산업은 다시 시장에서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08.00 (+13.91)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1)

▲ 코스닥 673.71 (+6.27) ▼ 환율 (USD) 1185.20원 (-0.80)



기아차 4세대 ‘뉴 스포티지’ 공개

파워 엔진·정속 주행·동급 최고 안전성 갖춰

‘SUV 명가’ 기아차가 혁신적 디자인과 두 가지 파워트레인, 동급 최고수준의 안전성 등 뛰어난 상품성으로 무장한 스포티지의 4세대 모델, ‘The SUV, 스포티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스포티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광주 대표 차종이다.

기아차는 27일 남양연구소 기아디자인센터에서 자동차 담당기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열었다. 스포티지는 세계 최초의 도심형SUV로, 4세대 모델인 ‘The SUV, 스포티지’는 미래지향적인 진보적 디자인과 한층 진일보한 상품성을 콘셉트로 개발됐다.

그 결과 ‘The SUV, 스포티지’는 혁신적 스타일의 강인하고 세련된 디자인, 역동적인 주행성능, 정숙한 운전환경, 넉넉하고 효율적인 실내공간, 동급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갖춰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국내 최고의 SUV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기아차는 기존 스포티지R의 디자인을 한 단계 발전시켜 더욱 진보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탄생한 ‘The SUV, 스포티지’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호타이어 전면파업 장기화

사측, 중재신청 이어 가져분 신청 예정

전면파업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데 이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져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한 절차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를 일방적으로 거부,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사측은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주중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져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중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효성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블루챌린저’가 베트남 짜에우 응웬 마을 가정을 방문해 현지 주민의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대학생 봉사단 해외서 ‘사랑의 구슬땀’

베트남 산간오지서 중학교 담장·수도관 설치, 교육봉사 등

효성의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효성 블루챌린저(Blue Challenger)’가 지난 23일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효성은 국내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단을 모집해 모두 21인의 블루챌린저를 선정했다. 효성 블루챌린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효성의 안양 연수원에서 ‘적정기술 워크숍’을 통해 현지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적정기술이란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효성 블루챌린저가 방문한 곳은 베트남 까오방성 응웬빈현 짜에우 응웬 마

을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280km 떨어진 산간오지다. 효성 블루챌린저는 이곳에서 블루 스토브, 솔라 랜턴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제품 보급과 사용 교육, 짜에우 응웬 중학교 담장 및 수도관 설치,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 등 현지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 블루챌린저는 이를 통해 짜에우 응웬 마을에 적합한 적정기술 제품을 개발, 내년 1월 보급할 예정이다.

효성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조현상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효성 블루챌린저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해외 지역에 적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급하여 지역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전남 소비경기 회복세

7~8월 대형소매점·전통시장 매출 전년수준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크게 위축했던 광주·전남지역 소비경기가 7~8월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내놓은 ‘2015년 7~8월 중 호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도소매업의 경우 4~5월 중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던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6월 들어 감소로 전환되고 전통시장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예약·행사 취소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6월 중 호남고속철도(KTX) 이용객은 5월대비 39.1% 감소(68만4000명→41만6000명)했고 순천

만정원, 담양 죽녹원, 장흥 우드랜드 등 전남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39만6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51.5% 급감했다.

하지만, 7월 이후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3~14일)가 개최되고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호남권 경제는 점차 개선됐다. 또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7~8월중 대형소매점 매출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고 전통시장 매출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충격이 세월호 사고 때보다 호남권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입었지만 회복세는 오히려 빨랐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신입 국내 부사장에 김시호씨

기획본부장 현상권씨

신성장동력본부장 박성철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7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입 국내부문 부사장에 김시호 전 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 또, 기획본부장에



김시호 부사장



현상권 본부장



박성철 본부장

현상권 전 기획처장, 신성장동력본부장에 박성철 전 성남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시호 부사장은 안동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나와 비서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 신입 본부장은 서울 대신고와 건국대 법학

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기북부본부장, 예산처장 등을 지냈다. 박 시호 부사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전기공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부지사장, 설비진단센터장 등을 거쳤다. /홍행기자 redplane@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4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리오피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